

적중의 시작은 축!

금일 입상이 기대되는 선수



창원 3경주
1번 박병하
★★★★★



창원 4경주
1번 임채빈
★★★★★




광명 11경주
3번 김지광
★★★★☆

3일내내 선행 승부로 3-3-3착 기록한 박병하가 오늘은 우승으로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 하겠다. 강력한 힘과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다양한 작전도 가능 해 축으로 손색 없다.

74연승 거두며 매 경주 새롭게 기록을 작성 하고 있는 절대강자 임채빈이 믿을 맨으로 나선다. 후미 견제 잘해 줄 수성팀 선배인 류재열과 협공에 비중 두는 그림이 그려진다.

김지광이 무난한 편성에 배정돼 그나마 우승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겠다. 경기운영 및 상대 활용 능력 모두 출중해 상대선수들이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광명 13경주
3번 왕지현
★★★★★



광명 16경주
3번 정종진
★★★★★



부산 5경주
1번 구상신
★★★★☆

자신이 축으로 나서는 편성이라 왕지현이 입상 책임감 가지고 강한 집중력을 보여주겠다. 안전운행 위해 선행력 좋은 최동현과 류재민의 사이를 갈라놓는 작전을 구사한다.

까다로운 결승전이지만 최근 기세를 볼 때 정종진의 우승에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경주다. 원하는 위치에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 나갈거라 더욱 더 믿음이 간다.

다양한 작전 가능한 구상신을 위협할만한 선수가 보이질 않는 편성이다. 다시 선행 자신감 회복한 최유선을 활용대상으로 삼아 승부거리 좁힌다면 우승은 안봐도 비디오다.

Check Point

창원 1경주 1번 김주석 - 인정 받느냐, 마느냐가 관건!



경주내용을 살펴보면 김주석이 매번 상대활용에 초점 맞추며 짧게 승부해왔다. 따라서 오늘은 기량 엇비슷한 선수를 만나 견제 당할 가능성 높다는 평가다. 특히 김해A팀인 황무현과 이성광의 반격이 만만치 않겠다.

광명 4경주 7번 김광진 - 다시 몸상태 살아났는데, 글썄...



강급후 한동안 기복 보이다 최근 들어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김광진의 선전이 기대된다. 힘 좋은 임병창과 이희석을 활용한다면 역전 드라마를 연출할수 있겠지만 승부욕 강한 임병창과 이희석이 응해주지 않는다면 김광진의 고전이 예상된다.

광명 12경주 4번 윤현준 -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



연승행진 달리고 있는 윤현준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지만 최근 흐름대로 파업과 비파업이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할수 있고, 특히 윤현준의 승부거리가 길어진다면 김영섭, 김동훈에게 덜미 잡힐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맹신은 금물이다.

경주	축	분석	경쟁상대
1 창원 우결	1번 김주석	불안	3번 황무현 4번 이성광
2 창원 특선	6번 김영수	안정	5번 곽현명
3 창원 특선	1번 박병하	유력	
4 창원 특결	1번 임채빈	유력	
1 광명 선발	1번 민상호	불안	5번 이우정 6번 임규태
2 광명 선발	3번 김홍건	유력	
3 광명 선발	2번 이한성	불안	4번 조창인 6번 오기현
4 광명 선발	7번 김광진	불안	1번 임병창 3번 이희석
5 광명 결	4번 김경환	불안	6번 김석호 2번 김재훈
6 광명 우수	7번 안효운	불안	3번 이진원 2번 박종현
7 광명 우수	2번 유선우	불안	5번 고요한 4번 장지웅
8 광명 우수	1번 김성현	안정	2번 고병수
9 광명 우수	1번 최순영	안정	7번 박종태
10 광명 우수	2번 노형균	불안	1번 임진섭 3번 최병길
11 광명 우수	3번 김지광	유력	
12 광명 우결	4번 윤현준	안정	6번 김영섭
13 광명 특선	3번 왕지현	불안	2번 최동현 4번 류재민
14 광명 특선	2번 조주현	유력	
15 광명 특선	5번 김민배	안정	6번 김형완
16 광명 특결	3번 정종진	유력	
4 부산 선발	3번 김영규	안정	2번 김용남
5 부산 선발	1번 구상신	유력	
6 부산 선결	2번 강형목	불안	1번 정 승 4번 이은우

조인대의 **목직한 두방!**

오늘 하루 자신있는 경기와 함께 승부해볼만한 경기를 엄선해서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창 2R	5-6(60%) 5-7(40%)
1 유경원	다소 무난한 상대를 만난 5번 곽현명이 금일은 우승후보로 활약할 수 있겠다. 강자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선행 승부로 입상권에 이름 올리고 있는 6번 김영수가 웬만하면 순리대로 풀어가는 스타일이라 득점 선두인 곽현명 앞에서 흐름 주도하겠는데, 곽현명의 배려와 김영수의 집중력이 더해진다면 두선수 사이 좋게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어 5-6에 비중 둘만 하겠다. 하지만 김영수가 끌어낼 선수들에 의해 승부 거리 길어진다면 종속 꺼지면서 곽현명 마크에 올인할 7번 김형모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만큼 5-7은 살짝 받쳐두는게 안전하겠다.
2 이성용	
3 강성욱	
4 강진원	
5 곽현명	
6 김영수	
7 김형모	

창 4R	1-3(60%) 1-2(40%)
1 임채빈	매 경주마다 연승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1번 임채빈이 결승전이긴 하지만 다소 무난한 상대들을 만나 후착찾기로 좁혀볼만 하겠다. 최근 임채빈이 큰 경기에선 순대로 풀어가고 있어 득점 두 번째인 3번 인치환과 앞, 뒤로 붙어타며 호흡 맞추겠는데, 이들을 상대로 탄지 걸어 올만한 경쟁자 없어 1-3이 저배당을 형성하겠다. 하지만 임채빈이 토, 일요경주에서 몸상태 점검하듯 의도적으로 선행 승부 펼쳤다면 금일도 길게 갈 수 있고 이때는 수성팀에서 한솔밥 먹고 있는 2번 류재열까지 챙겨줄 수도 있는 만큼 1-2는 차선책으로 노려볼만 하겠다.
2 류재열	
3 인치환	
4 공태민	
5 엄정일	
6 박용범	
7 조영환	

광 3R	2-4(60%) 2-6(40%)
1 조영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작전 가능한 2번 이한성이 최근 기세도 나쁘지 않아 금일 우승후보로 손색 없겠다. 이한성이 무난한 편성을 만나 고교 직속후배인 4번 조창인과 협공 쪽에 무게 두겠는데, 최근 조창인의 컨디션이 좋아 붙어타기만 한다면 2-4로 마무리 될 수 있겠다. 하지만 해볼만한 편성 만난 6번 오기현이 전일 선행 승부 펼친 5번 권우주가 언제든지 흐름 이끌 수 있는 7번 이일수 중 한명을 물고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승부타이밍을 잡아낸다면 2착까지 버틸 수도 있는 만큼 2-6은 차선책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2 이한성	
3 한은철	
4 조창인	
5 권우주	
6 오기현	
7 이일수	

광 15R	5-6(70%) 5-7(30%)
1 박준성	한바퀴 선행 시속 상당히 빠른 5번 김민배가 무난한 상대를 만나 우승까지 욕심내겠다. 초반 줄서는 과정에서 꺾끄러운 상대인 6번 김형완을 붙이고 순리운영 택하겠는데, 김형완의 역전을 의식해 세종팀에서 한솔밥 먹고 있는 1번 박준성의 선행력을 십분 활용한뒤 추입, 꺾히기 나선다면 우승까지 문제 없어 5-6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하지만 김형완이 김민배를 차분하게 따라가지 않고 외선에서 힘쓰는다면 시속 좋은 김민배를 넘지 못하며 뒤따를 7번 배민구에게 역전 기회 주어질 수도 있는 만큼 5-7은 관심가져볼만 하겠다.
2 김원정	
3 김동관	
4 문인재	
5 김민배	
6 김형완	
7 배민구	

부 4R	2-3(60%) 2-7(40%)
1 강철호	매 경주 승부욕 강한 2번 김용남이 3일 동안 2% 부족한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일은 이 악물고 우승사냥 나서겠다. 김용남이 같은 비과업 세력들인 3번 김영규, 7번 정주상과 힘합치겠는데, 최근 김영규와 정주상의 컨디션이 양호해 이들과 동반입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일단 줄서는 과정에서 친구인 김영규를 붙이고 의도적으로 선행가며 인지도 쌓고 있는 정주상을 앞세우겠는데, 아직까지 제 기량 회복하지 못한 정주상보다 편안하게 뒤따를 김영규가 유리해 2-3을 추천하고, 김용남이 정주상을 배려해준다면 2-7도 가능하겠다.
2 김용남	
3 김영규	
4 용석길	
5 김경록	
6 송영진	
7 정주상	

부 5R	1-4(60%) 1-6(40%)
1 구상신	경기 거듭할수록 예전 좋았던 감각을 되찾고 있는 1번 구상신이 금주 가벼운 페달링 선보이며 부활의 신호탄 쏘아올렸다. 금일은 만만한 상대들을 만나 우승까지 넘보겠는데, 전일 한바퀴 승부로 2착하며 몸상태 점검한 구상신이 의창팀에서 한솔밥 먹고 있는 4번 우종길을 챙겨준다면 컨디션 저조하더라도 마크 정도는 가능한 우종길이 2착할 수 있어 1-4를 권하고 싶다. 하지만 구상신이 무리한 협공보단 경쟁 상대인 6번 구광규와 타협한다면 우종길의 입상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1-6은 차선책으로 받쳐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김명중	
3 이근우	
4 우종길	
5 최유선	
6 구광규	
7 정성기	